귀 솔깃 했던 교육·취업 약속 법적으로 불가

나주혁신도시 이전기관 지원 왜 지지부진하나

종합병원 설립·콘도회원권 등 수정 불가피

전남도·광주시, 나주시 등이 내건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이전지원 계획' 중 눈길을 끌었던 공무원 채용과 대학 입학, 기숙사 특례 등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

또 민자유치가 필요한 병원 설립 등도 제때 건립하는 게 불가능하고, 콘도회원권 지원 등 작은 약속도 지키기 힘들어졌다.

우선 이주 기관 임직원의 귀를 솔깃하게 했던 '자녀 공무원 특별채용' 등 자녀 교육과 취업에 관련된 약속은 지키기가 힘든 여건이다.

나주시는 1년 이상 나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이전 기관 임직원 자녀를 특채하려고 했지만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 유력인사 자녀 편법 특채 창구로 변질된다"며 폐지를 권고했다. 사실상 법적으로 불가능한 약속인 셈이다.

학부모의 관심을 모은 '남도학숙 특례 입사'도 한정된 수용인원에 비해 입사 희망자가 너무 많아 약속을 지키기 힘들어졌다. 현재 남도학숙은 810명을 수용할 수 있지만 전남 22개 일선 시·군별 배정을 통해 입사생을 뽑고 있어 나주지역만 늘리기 힘들다는 것이다.

또 문화공간, 공연장, 유비쿼터스 학습 기반 시설을 갖춘 '환경친화적인 첨단학교' 설립도 예산 확보 방안이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다. 예산이 마련되지 않아 정부의 특별교부금과 지자체의 예산 지원만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임직원과 자녀를 동신대에 특례 입학시키겠다는 약속도 고등교육법시행령(제34조)에 저촉돼 수정이 불가피하다.

초·중·고교를 한 단지 내 건립하는 '스쿨 컴플렉스 내 교육문화지구'도 재정적 지원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병원 건립 등 생활·문화·교통 분야 지원 약속도 차질을 예상된다. 272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한 '국립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원을 건의했지만 "다른 지자체에서 유치 건의했지만 타당성이 없어 미반영된 사업"이라며 반려됐다.

종합병원 유치도 난항이 예상된다. 500억~1500억원이 들 것으로 보이는 이 사업은 수도권과 광주지역 대학병원을 상대로 투자를 제안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

또 혁신도시 중앙호수공원에 들어서게 되는 '명예의 전당'(200억원)은 사업 발주가 늦춰지고 있다. '주택구입용 대출이자 지원'도 이주예상 직원 3221가구 중 2577가구가 신청할 것으로 예측돼 이자비용만 5년간 129억원이 들 것으로 보여 나주시가 예산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주 가족을 위한 '나주 중흥골드스파 콘도 회원권 확보 지원' 사업은 최근 이 시설의 이용률이 증가해 나주시가 7000만원을 들여 회원권을 10구좌로 늘려도 방을 얻기 쉽지 않게 됐다.

전남도 관계자는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많아 완료된 사업 수가 적은 것 같다"며 "'이전지원 계획' 추진 상황을 이전기관에 공개해 상호 논의를 통해 일부 사업은 수정하거나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총리·靑 실장 주내 인선한다

정치권, 빠르면 오늘 발표 예상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금주 중 후임 국무총리 인선과 비서실장 등 청와대 인선을 단행할 것으로 6일 알려지고 있다.

여권 일각에서는 설 연휴 이후 인선도 큰 문제가 없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새정부 출범을 20일도 채 안 남긴 상황에서 청와대 인선은 물론 내각을 통괄할 총리 인선조차 하지 못할 경우,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게 정치권의 일반적 관측이다. 때문에 두 직위에 대한 인선은 금주중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초미의 관심은 역시 '검증'
또 여론평가 낙제점 받으면
향후 국정운영 부담 … 신중

당선인 비서실의 한 관계자도 "인선이 이번 주를 넘어갈 수는 없다"고 단언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박 당선인이 7일 인선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6일 발표는 박 당선인의 동선과 일정을 고려할 때 어려울 것이란 게 일반적 분석이었다. 또 8일은 설 연휴가 사실상 시작되는 날이어서 언론의 관심도 인선에 집중되기는 힘들다는 점에서 부적합하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런 가운데 금주 인선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은 역시 검증이다. 김용준 전 총리 후보자가 낙마한 데에는 박 당선인 측의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게 가장 큰 이유였던 만큼 '치명적 실수'가 이번에도 반복되느냐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는 것이다.

때문에 통의동 비서실 내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당선인 측과 정부 각 기관의 인사검증 인사들이 참여하는 검증팀이 현재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는 비서실장 등 청와대 인선에서도 '여론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을 경우, 향후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인선을 진행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반갑습니다"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인수위·전국 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한 강운태 광주시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 정부 이름 '박근혜 정부'로 결정

새 정부의 이름이 '박근혜 정부'로 결정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6일 오전 서울 삼청동 인수위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확정했다고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이 전했다.

인수위는 그간 국정기획조정분과의 주관 아래 2차례의 외부전문가 인터뷰와 수차례에 걸친 간사회의 등을 통해 명칭 후보군을 '박근혜 정부'와 '민생 정부', '국민행복정부'로 압축했다가 이날 최종적으로 '박근혜 정부'를 선택했다.

윤 대변인은 "인수위는 새 정부의 명칭을 '박근혜 정부'로 하고 국민행복 등 당선인의 핵심 국정철학과 가치는 국정비전에 반영하기로 의견을 모은 후 당선인에게 보고, 동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 정부'나 '참여 정부'처럼 별도 명칭을 사용하지 않은 데 대해 "헌법정신과 해외사례 등을 감안할 때 적절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며 "같은 헌법 하에서 정부가 스스로 명칭을 정하는 것은 어색할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별도의 정부 명칭을 사용하는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민족의 핏줄타고 흐르는 예술 유전자

김은영의 '그림 생각'

⑯ 강남스타일

'뿔나팔을 부는 사람'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새해에도 세계인들을 사로잡고 있다.

드디어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 되었구나"하고 감탄하다가 문득 그 뜨거운 열기의 이유가 궁금해진다.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세계 시장에서 환영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한국적인 것의 세계화'가 아니라 어쩌면 세계적인 보편적 속성에 우리 것을 잘 담아냈기 때문이었을 지도 모른다.

요즘 트렌드인 일렉트로닉 팝의 리듬, 박자, 춤에 우리 것을 더해 인기 있으니 말이다. 싸이와 더불어 K-POP가수들의 활약에서 기획사의 노력 너머 뿌리 깊은 우리 민족의 가무에 대한 감각과 재능이 느껴진다.

고구려의 무용총 고분벽화(5세기)의 '뿔나팔을 부는 사람'을 보면 K-POP으로 세계인을 들썩이게 하는 우리 젊은이들에게서 분출되는 유전자의 시원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다.

무덤 주인공이 즐겼을 춤공연이 기록돼 있는 무용총 천장 벽화 속, '뿔나팔을 부는 사람'의 그 대담한 연출을 무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모자 위 장식과 온몸을 휘감고 있는 패션의 삼각 재단, 한껏 멋을 낸 뒷머리와 도발적인 맨발은 요즘 보아도 최첨단 스타일이다. 이처럼 자유분방한 패션을 하고 뿔나팔로 연주하는 아름다운 선율이 무덤 주인공을 위로하며 하늘세계로 인도했을 것 이다.

한 연구가는 "벽화를 보유한 민족은 핵무기를 보유한 민족보다 훨씬 위대하고 강하다"고 한다. 지금까지 알려진 고구려 고분벽화는 95기. 오늘날 영상매체에 맞먹는 고구려벽화의 생생한 화면에서 알 수 있듯 고구려인의 진취적 기상과 예술적 힘, 세계를 향한 열린 가슴은 그대로 이어져 지금 발휘되고 있는 것 같다. 이처럼 무용총 고분벽화 속 주인공들은 한민족의 핏줄을 타고 흐르는 예술적 유전자의 살아있는 증거로 우리 곁에 남아있다.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미술사박사〉

낯日만평

- 김종두

이래저래 떨리는 세상

아이투어클럽과함께 대한항공 타고 저렴하게 떠나는 즐거운 제주여행

대한항공과 함께하는 제주도 봄 여행 특가 상품

저렴하게 떠나는 버스정기투어

tc1 제주 新관광 알뜰특가 (관광열차. 코끼리랜드쇼 공연) 3일 ₩249,000~

tc2 제주 최고일정 육해공투어 (잠수함+우도유람선) 3일 ₩319,000~

tc3 제주 고품격일정 웰빙투어 (더마파크공연+매직아일랜드+특석식2회) 3일 ₩339,000~

땡처리 관광명소탐방 3박4일 [2/18, 2/25, 3/4, 3/11 단4회] ₩149,000~

등 산 한라산등반 1박2일 [2/3, 2/17, 2/24, 3/3 단4회] ₩149,000~

• 포함사항 : 왕복항공, 숙소(1박/2박/3박-합숙), 식사(일정체크), 관광요금, 유가할증료
• 불포함사항 : 기사/가이드팁(1인10,000), 선택관광, 식사체크

에어카텔 자유여행(제주2박3일) 주중출발!!

제주관광지할인쿠폰,주말항공,숙박,렌트카 www.mongjeju.com

	2인실	4인실
팬 션	319,000~	249,000~
관광호텔	289,000~	239,000~
칼호텔	369,000~	309,000~
리조트급	339,000~	269,000~

• 포함사항 : 주중왕복항공, 숙소(2박), 식사(조식), 유가할증료 • 불포함사항 : 자차보험, 주유비용

제주 골프 특가 팩 (왕복항공1박2일)

출발일 2/17, 2/24, 3/3, 3/10 (단4회) ₩299,000~

• 포함사항 : 왕복항공, 숙소(팬션4인실), 캐슬렉스+한라산(18홀2회), 왕복수송 • 불포함사항 : 유가할증(32,200), 기사가이드팁, 식사

협 찬 KOREAN AIR

주말항공, 제주패키지, 가족/단체여행, 신혼여행
골프투어 365일 좌석확보 제주송출1위

예 약 투어클럽&스피드골프 투어

www.itourclub.co.kr
김경호 팀장 062) 382-8201